

경향서당

주역 강의

2018년 4월

김상섭

naturkind@hanmail.net

053)-587-2721

강좌 일정

1. 『주역』에 대한 개괄적 설명
2. 『역전』에 대하여
3. 상경上經——건乾, 곤坤, 수需, 소축小畜, 동인同人.
4. 수隨, 고蠱, 비賁, 무망无妄, 감坎, 리離.
5. 하경下經——함咸, 둔遯, 대장大壯, 명이明夷, 규睽, 구姤.
6. 정井, 정鼎, 점漸, 여旅, 환渙, 중부中孚.
7. 춘추전국 시대의 정통 주역점법.
8. 「계사」상전——1장, 4장, 5장, 9장,
9. 10장, 11장, 12장. (선천팔괘차서도. 하도낙서)
10. 「계사」하전——1장, 2장.
11. 5장, 9장, 12장.
12. 「설괘」3장, 5장, 10장 강독.
선천팔괘방위도. 태극기의 그림 원리. 후천팔괘방위도와 차서도.

『周易』에 대하여

1. 『주역』의 출현의 배경
 - 1) 역사적 배경
 - 2) 문화적 배경
2. ‘周’와 ‘易’의 뜻
 - 1) ‘周’의 뜻
 - 2) ‘易’의 뜻
3. 『周易』의 세 가지 구성 요소
 - 1) 卦
 - 2) 爻
 - 3) 辭

『易傳』에 대하여

1. 『역전』의 출현의 배경
 - 1) 춘추 시대의 점서역
 - 2)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2. 『역전』의 출현
 - 1) 구성
 - 2) 『역전』이 쓰인 시대와 지은 사람들
3. 『주역』과 『역전』의 결합
4. 「단」「상」의 爻位說

[첫째 주]

『周易』에 대하여

1. 『주역』의 출현의 배경

1) 역사적 배경…司馬遷(B.C.145~B.C.85?) 『史記』

① 五帝本紀…황제黃帝, 전옥顓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

② 夏本紀…禹(황제의 손자의 손자, 전옥의 손자). 17대 걸桀 멸망(432년 지속).

③ 殷本紀…설契(제곡의 둘째 부인의 아들)…商(하남성 상구현商丘縣)에 도읍. (子 성 하사)

14대 탕湯이 夏나라의 걸桀을 축출함.

은나라 1대 탕湯임금…박亳에 도읍(370년 지속).

19대 반경盤庚…은殷(하남성 안양현安陽縣)으로 천도(殷墟)(279년 지속).

30대 주왕紂王…멸망.

④ 周本紀…기棄(제곡의 정비의 아들)

13대 고공단보古公亶父…섬서성陝西省 기산현岐山縣에 정착(周原).

——계력季歷——창昌(文王)——발發(武王)——송誦(成王)

↓ (동생)
단묘(周公)

2) 문화적 배경…은나라의 문화

- ① 점…복卜…거복점. (갑甲…거복 배딱지. 골骨…짐승 뼈)
서筮…시초蓍草점.
- ② 문자…甲骨文…10만여 조각, 20세기 초에 발견…점복으로 사용.
 - 글자 수…약 3천 자~3천 5백 자.
 - 중복된 글자를 빼면…약 2천 자 정도.
 - 해독 가능한 글자…1300~1400자 정도.
- ㉠ 曆法을 사용…10天干, 12地支를 사용하여 날짜를 기록.
1년…12개월, 큰 달…30일, 작은 달…29일.
- ㉡ 점친 날짜를 기록함…辛卯貞 신묘일에 점을 쳤다. (貞=占)
- ㉢ 점친 내용…제사, 혼사, 사냥, 정벌, 풍우, 풍년, 득남 등등.
- ㉣ 판단사…利, 不利, 吉, 大吉, 弘吉, 弗悔 등등.

※ 『주역』은 은나라의 복卜(거복점)과 서筮(시초점)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온 것.

2. ‘周’와 ‘易’의 뜻

1) ‘周’의 뜻…왕조의 이름(代名)

- ① 夏…連山…8만자…간괘(☶ 山)로 시작.
- ② 殷…歸藏…4천 3백여 자…곤괘(☶ 地)로 시작.
- ③ 周…周易…4천 9백여 자…건괘(☰ 天)로 시작.

- 갑골문 글자 2천여 자.
- 주나라 이전에는 괘가 없었다(갑골문에 괘가 없다).

2) ‘易’의 뜻

- ① 본래의 뜻…주나라의 점책(『좌전』 以周易筮之)…한 책의 고유 명칭.
 - 주희朱熹의 기록…周, 代名也. 易, 書名也.
 - 고형高亨의 주장…관명이 서명으로 되었음.
- ② 『역전』 「계사」…生生之謂易(낳고 또 낳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변역 변화의 뜻.
 - 周易…주나라의 변화에 관한 책. (인간의 운명의 변화. 우주의 과정의 변화)
(영국 제임스 레게 James Legge 1815~1897의 영역 Book of Changes)
- ③ 문자상의 해석
 - ㉠ 갑골문의 ‘易’字…해가 구름을 뚫고 비치는 모양.
‘易日’(날짜를 바꾸어라), ‘不易日’(날짜를 바꾸지 말라)과 함께 사용…변경의 뜻.
 - ㉡ 후한 허신許慎 『說文解字』
 - 도마뱀의 모양을 나타낸 것(易, 蜥易, 蝘蜓, 守宮也. 象形.)…善變(잘 변한다).
 - 해와 달이 역이다(日月爲易)…후한 위백양魏伯陽의 설.
 - 勿로 되어 있다(从勿)…‘易’자의 아래 부분은 깃발(旂)이라는 뜻의 勿로 되어 있다.

④ 의미상의 해석

- ㉠ 후한 정현鄭玄…易 三義說
 - 변역變易…변한다.
 - 불역不易…변하지 않는다.
 - 간이簡易…간단하고 쉽다.
- ㉡ 송 호원胡瑗, 정이程頤…변역變易.
- ㉢ 소옹邵雍, 주희朱熹…교역交易, 변역變易.

3. 『周易』의 세 가지 구성 요소…1) 卦. 2) 爻. 3) 辭.

1) 卦…주역점을 칠 때 사용하는 부호 (『설문해자』 从卜, 圭聲)

① 기본괘…八卦

- 「계사전」의 배열순서…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先天八卦, 복희팔괘)
- 「설괘전」의 배열순서…건, 곤, 진, 손, 감, 리, 간, 태. (後天八卦, 문왕팔괘)

(卦畫)	☰	☱	☲	☳	☴	☵	☶	☷
(卦名)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卦象)	天	澤	火	雷	風	水	山	地
(卦德)	健	說	麗	動	入	陷	止	順

- 누가 그렸는가?…복희伏羲(『주역』 「계사」…전설상의 기록).
- 주나라 이전에는 괘가 없었음.

② 겹친 괘(重卦)…8*8=64괘…점치기 위한 것.

1번 乾(하늘) ☰ 2번 坤(땅) ☷ …………… 63번 既濟(완성) ☵☲ 64번 未濟(미완성) ☲☵

- 우주와 인생의 생멸 변화는 영원히 끝나지 않음.
- 『주역』은 64괘, 한 괘는 6효로 구성되어 있다.
- 누가 겹친 괘를 그렸는가?
 - ㉠ 전한 司馬遷 · 후한 班固…文王
 - ㉡ 후한 鄭玄…神農
 - ㉢ 위 王弼…伏羲
 - ㉣ 동진東晉 孫盛…夏禹

2) 爻…괘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부호

- ① 양 一 九 (양을 대표하는 수)
- 음 二 六 (음을 대표하는 수)

② 효의 유래

- 장정량張政娘의 주장 - (一) … —
 ^ (六) … --
- 장립문張立文의 주장 - … — … —
 ^ … ** … ** … --

③ 효의 명칭…전국 시대에 만들어 짐.

- 九와 六…양효와 음효를 나타냄.
- 初 二 三 四 五 上…효의 위치를 나타냄.

— 上九	-- 上六	-- 上六	— 上九
— 九五	-- 六五	— 九五	-- 六五
— 九四	-- 六四	-- 六四	— 九四
— 九三	-- 六三	— 九三	-- 六三
— 九二	-- 六二	-- 六二	— 九二
— 初九	-- 初六	— 初九	-- 初六
乾	坤	既濟	未濟

- 初…시간 개념. 上…공간 개념. 한 괘 6효는 시공 속에 존재하는 현상계를 말함.
- 『주역』은 64괘 384효로 되어 있다.

3) 辭…점 풀이 글. 괘사와 효사가 있음…길흉을 논함, 절대 길 절대 흉은 없음.

① 괘효사의 내용…한 괘는 하나의 고사를 기록한 것. 은말 주초의 고사로 되어 있음.

- ㉠ 은나라 고사…모두 10괘
- ㉡ 주나라 고사…모두 23괘
- ㉢ 기타 내용…모두 31괘

※ 『주역』은 주공과 성왕 당시에 쓰인 것이며, 『주역』의 주인공은 문무 두 왕이고, 그 중심 내용은 은의 멸망과 주의 건국이다.

※ 『주역』은 64편의 단편 이야기 책. 64편의 이야기를 점책으로 편집한 것.

② 괘효사는 누가 지었는가?

- 사마천 · 반고…문왕
- 후한 마융馬融과 魏의 육적陸績…괘사는 문왕, 효사는 주공이 지음.

※ 괘효사는 주나라 초기, 주나라 수도 호경鎬京에서 여러 점치는 관리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 생활상의 경험 등을 반영하여 편집한 것.

③ 판단사

- 행운을 나타내는 판단사…吉(길할 길), 亨(형통할 형), 利(이로울 리).
- 불운을 나타내는 판단사…凶(흉할 흉), 悔(늪우칠 회), 吝(遴 어려울 린), 厲(위태로울 려), 咎(허물 구).

- 괘효사에吉이 144곳,凶이 58곳 기록…인생은 흉한 일보다 길한 일이 더 많다.
……한 번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것.

[둘째 주]

『易傳』에 대하여

1. 『역전』의 출현의 배경

1) 춘추 시대(294년 지속)의 점서역

제후와 대부들이 주역점을 침…22조의 점친 사례(춘추 점서역)…역학의 시원
『좌전』…13조(6조)…19조. 『국어』…3조.

- ① 象數易과 義理易의 시원.
- ② 64괘에서 팔괘를 이끌어내고, 팔괘에 상을 붙여, 그 상을 가지고 점을 해석함.
- ③ 괘상을 가지고 괘명과 괘효사를 해석함.
- ④ 변괘설…어느 괘가 어느 괘로 변한 것을 얻었다(遇某卦之某卦).
한대의 호체互體와 괘변卦變 등 상수역의 출현에 영향을 끼침.
- ⑤ 천도를 가지고 인사를 해석함. 乾「象」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등등.

- 筮短龜長, 不如從長. (『좌전』 僖公 4년)
시초점은 잘 안 맞고 거북점은 잘 맞으니, 잘 맞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좋다.

2) 전국 시대(255년 지속)의 제자백가

- ① 주역점이 백성들에게 보편화되었음…24조의 문장.
『순자』「大略」…善爲易者不占(역에 능통한 자는 점치지 않는다.)
『주역』「계사」…百姓日用, 百姓與能, 民咸用之謂之神 등등.
- ② 諸子百家의 출현…완벽한 중국적 철학

- 춘추 후기…공자 등장
- 전국 초기…묵자, (노자).
중기…맹자, 장자, 명가名家.
후기…순자, 한비자, 음양가(추연鄒衍).
- 진…통일(B.C.221) 후 분서갱유 단행…제자백가 소멸 (통일 15년 만에 멸망).
- 유가와 도가는 남음, 음양가는 흡수됨.
- 한초…『대학』 『중용』 『역전』 등 출현.

※ 당시 지식인들은 괘효사를 인용하여 인간사를 논함.
점보다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남. 『주역』을 도덕 수양서로 보았음.

2. 『역전』의 출현

『주역』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해설서…7종 10편(十翼).

1) 구성

- ① 「단象」 상·하…괘명과 괘사를 해설한 것.
- ② 「상象」 상·하…「대상大象」…괘상을 해설한 것.
「소상小象」…효상을 해설한 것.
- ③ 「문언文言」…건·곤 두 괘의 괘효사를 해설한 것.
- ④ 「계사繫辭」 상·하…주역점을 찬양한 글. 주역점을 자연과 인간에 결부시켜 철학화한 것. (「계사」는 『주역』의 꽃. 『주역』은 「계사」가 출현함으로써 마침내 『주역』이 되었다.)
- ⑤ 「설괘說卦」…팔괘를 해설한 것.
- ⑥ 「서괘序卦」…64괘의 배열 순서를 해설한 것.
- ⑦ 「잡괘雜卦」…64괘를 섞어 괘명을 해설한 것.

※ 『역전』은 춘추전국 시대의 『주역』 발전의 총결서.

※ 『역전』이 출현함으로써 『주역』은 점책에서 철학책으로 그 면모를 일신함.

『帛書周易』…1973년 호남성 장사 馬王堆 3호 한묘에서 출토된 비단에 쓰인 주역.

『帛書易經』…「64괘 괘효사」

『帛書易傳』…「二三子」「繫辭」「易之義」「要」「목화繆和」「昭力」으로 구성.

2) 『역전』이 쓰인 시대와 지은 사람들

- ① 「단」「상」…전국 후기에서 진대를 거쳐 한초에 이르기까지 생존했던 제나라 출신의 직하稷下 유생의 작품. 같은 사람이 썼다.
- ② 「문언」…같은 시기 노나라 출신의 직하稷下 유생의 작품.
- ③ 「계사」…같은 시기 초나라 출신의 직하 유생의 작품.
- ④ 「설괘」…전한 7대 무제武帝 이전 한대 유생의 작품.
- ⑤ 「서괘」「잡괘」…무제 이후 한대 유생들의 작품.

3. 『주역』과 『역전』의 결합

- ① 후한 후기 정현鄭玄(127~200)이 『역전』을 『주역』에 갖다 붙임
- ② 위魏 왕필王弼(226~249)에 이르러 『주역』과 『역전』이 결합하여 오늘날의 『주역』이 탄생함.

• 『주역』은 ‘역경’이 되고, 『역전』은 ‘역전’이라고 칭함.

※ 『주역』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

『주역』은 ‘역경’과 ‘역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역경易經…64괘 괘효사. (본래의 『주역』임)

• 3천여 년 전, 주나라 초기에, 점치는 관리들이 쓴 점책.

• 경문經文——점책.

㉠ 역전易傳…「단象」 상·하, 「상象」 상·하, 「문언文言」, 「계사繫辭」 상·하, 「설괘說卦」, 「서괘序卦」, 「잡괘雜卦」…7종 10편…십익十翼.

- 2천 2백여 년 전, 전국 후기 이후, 직하의 유생들이 쓴 철학적 해설서.
- 전문傳文——철학책.

③ 왕필 이후 『역전』을 가지고 『역경』을 해석함…以傳解經.

④ 20세기 중국 고증역학과 출현…聞一多, 李鏡池, 高亨, 屈萬里 등등.

「경」과 「전」을 분리하여 「경」으로 「경」을 해석(以經解經),

「전」으로 「전」을 해석(以傳解傳)하게 되었다…현대 『주역』 연구의 일반적 사조.

4. 「象」 「象」의 爻位說

효위설…그 효가 한 괘 여섯 효 중에서 위치해 있는 것을 가지고 괘효사를 해석한 것.

1) 「단」의 효위설

① ‘中’…한 괘에서 아랫괘의 가운데 자리에 있는 둘째 효와 윗괘의 가운데 자리에 있는 다섯째 효를 ‘중’이라고 한다. ‘중’을 얻으면 길하다. ‘大中’, ‘中正’, ‘正中’이라고도 한다.

② ‘位’…효가 위치해 있는 자리를 ‘위’라고 하였다. 다섯째 양효(九五)의 자리를 ‘尊位’, ‘天位’, ‘帝位’라고 한다.

③ ‘當位’…한 괘 여섯 효에서 처음, 셋째, 다섯째는 양의 자리이고, 둘째, 넷째, 꼭대기는 음의 자리이다. 양효가 양의 자리에 있고, 음효가 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당위’라고 한다. ‘당위’면 길하다. ‘得位’, ‘位當’, ‘正位’라고도 한다.

④ ‘不當位’… 양효가 둘째, 넷째, 꼭대기 음의 자리에, 음효가 처음, 셋째, 다섯째 양의 자리에 있는 것. ‘부당위’면 흉하다. ‘位不當’, ‘失位’라고도 한다.

⑤ ‘應’…한 괘 여섯 효 가운데 처음과 넷째, 둘째와 다섯째, 셋째와 꼭대기는 그 자리가 서로 응한다. 양효와 음효가 만나면 응하고, 양효와 양효 혹은 음효와 음효가 만나면 응하지 않는다. 응하면 길하고 응하지 않으면 흉하다. 서로 ‘응’하지 않는 것을 ‘敵應’이라고 한다. ‘적응’하면 흉하다.

⑥ ‘乘’…효가 효 위에 있는 것. 유가 강을 타면 흉하다.

2) 「상」의 효위설

① ‘中’…둘째 효와 다섯째 효를 ‘중’이라고 한다. 둘째 효는 아랫괘의 가운데, 다섯째 효는 윗괘의 가운데 자리에 있다. ‘중’을 얻으면 길하다. ‘中正’, ‘正中’, ‘中直’, ‘中道’라고도 한다.

② ‘下’…처음 효는 한 괘에서 가장 아래에 있으므로 ‘하’라고 칭하였다. ‘卑’, ‘始’라고도 한다.

③ ‘上’…꼭대기 효는 한 괘에서 가장 위에 있으므로 ‘상’이라고 칭하였다. ‘窮’, ‘終’, ‘亢’, ‘盈’이라고도 하였다.

④ ‘當位’…한 괘 여섯 효에서 처음, 셋째, 다섯째는 양의 자리이고, 둘째, 넷째, 꼭대기는 음의 자리이다. 양효가 양의 자리에 있고, 음효가 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당위’라고 한다. ‘당위’면 길하다. ‘位正當’, ‘正位’, ‘正’, ‘居位’, ‘在位’라고도 한다.

⑤ ‘不當位’…양효가 둘째, 넷째, 꼭대기 음의 자리에, 음효가 처음, 셋째, 다섯째 양의 자리에 있는 것. ‘부당위’면 흉하다. ‘未當位’, ‘位不當’, ‘非其位’, ‘未得位’, ‘不當’, ‘未當’이라고도 한다.

- ⑥ ‘乘’…효가 효 위에 있는 것. 유가 강을 타면 흉하다.
- ⑦ ‘比’…효가 서로 이웃하여 친근한 것을 ‘비’라고 한다.

※ 중요한 주해서

1. 魏 王弼 『周易注』
2. 唐 孔穎達 『周易正義』
3. 唐 李鼎祚 『周易集解』
4. 北宋 胡瑗 『周易口義』
5. 北宋 程頤 『易傳』
6. 南宋 朱熹 『周易本義』
7. 明 來知德 『周易集註』
8. 清 王夫之 『周易內傳』
9. 清 毛奇齡 『仲氏易』
10. 清 李光地 『御纂周易折中』

※ 20세기 이후 중요한 주해서

1. 聞一多 『周易義證類纂』
2. 屈萬里 『讀易三種』
3. 李鏡池 『周易通義』
4. 高亨 『周易古經今注』, 『周易大傳今注』
5. 陳鼓應 『周易注譯與研究』
6. 鈴木由次郎(스즈키 요시지로) 『易經』 상하
7. 김상섭 『내 눈으로 읽은 주역』 전4권
8. 김상섭 『마왕퇴 출토 백서주역』 상하
9. 김상섭 『춘추 점서역』
10. 김상섭 『주역 계사전』

※ 元亨利貞의 해석

- ① 「단」…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여 이롭다.
- ② 「문언」… ㉠인자하고, 예절바르고, 의롭고, 바르다.
 ㉡만물이 비롯되고 형통하다. 만물을 이롭게 하고 바르다.
- ③ 정자 등 의리역…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다. (四分法)
- ④ 주자 등 상수역…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면 이롭다. (二分法)
- ⑤ 高亨의 해석…큰 제사를 거행한다. 점에 물으니 이롭다.
- ⑥ 屈萬里的 해석…큰 제사를 거행한다. 점에 물으니 이롭다.
- ⑦ 李鏡池의 해석…크게 형통하다. 점에 물으니 이롭다.
- ⑧ 김상섭의 해석…가장 형통하다. 이롭다는 점이다.

[셋째 주]

上經

1. ☰ 乾. 元亨. 利貞.

初九. 潛龍, 勿用.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 无咎.

九四. 或躍在淵，无咎.

九五. 飛龍在天，利見大人.

上九. 亢龍，有悔.

用九. 見羣龍无首，吉.

2.  坤. 元亨. 利牝馬之貞. 君子有攸往，先迷
後得主，利. 西南得朋，東北喪朋. 安貞吉.

初六. 履霜，堅冰至.

六二. 直方大，不習，无不利.

六三. 含章，可貞. 或從王事，无成有終.

六四. 括囊，无咎无譽.

六五. 黃裳，元吉.

上六. 龍戰于野，其血玄黃.

用九. 利永貞.

5.  需. 有孚，光亨. 貞吉. 利涉大川.

初九. 需于郊，利用恒，无咎.

九二. 需于沙，小有言，終吉.

九三. 需于泥，致寇至.

六四. 需于血，出自穴.

九五. 需于酒食，貞吉.

上六. 入于穴，有不速之客三人來，

敬之，終吉。

9. ☱ 小畜．亨．密雲不雨，自我西郊．

初九．復自道，何其咎，吉．

九二，牽復，吉．

九三．輿說輻，夫妻反目．

六四．有孚，血去惕出，无咎．

九五．有孚攣如，富以其鄰．

上九．既雨既處，尚德載．婦貞厲．月幾望，
君子征凶．

13. ☲ 同人于野，亨．利涉大川．利君子貞．

初九．同人于門，无咎．

六二．同人于宗，吝．

九三．伏戎于莽，升其高陵，三歲不興．

九四．乘其墉，弗克，攻吉．

九五．同人先號咷而後笑，大師克，相遇．

上九．同人于郊，无悔．

[넷째 주]

17. ☱ 隨．元亨．利貞．无咎．

初九．官有渝，貞吉．出門交有功．

六二. 係小子，失丈夫。
六三. 係丈夫，失小子。隨有求得。利居貞。
九四. 隨有獲，貞凶。有孚在道，以明，何咎。
九五. 孚于嘉，吉。
上六. 拘係之，乃從維之，王用亨于西山。

18.  蠱. 元亨。利涉大川，先甲三日，
後甲三日。

初六. 幹父之蠱，有子考，无咎。厲，終吉。
九二. 幹母之蠱，不可貞。
九三. 幹父之蠱，小有悔，无大咎。
六四. 裕父之蠱，往見吝。
六五. 幹父之蠱，用譽。
上九. 不事王侯，高尚其事(德，兇)。

22.  賁. 亨。小利有攸往。

初九. 賁其趾，舍車而徒。
六二. 賁其須。
九三. 賁如濡如。永貞吉。
六四. 賁如皤如，白馬翰如，匪寇婚媾。
六五. 賁其丘園，束帛戔戔，吝，終吉。

上九. 白賁, 无咎.

25.  无妄. 元亨. 利貞. 其匪正有眚,
不利有攸往.

初九. 无妄, 往吉.

六二. 不耕穫, 不菑畲, 則利有攸往.

六三. 无妄之災, 或繫之牛, 行人之得,
邑人之災.

九四. 可貞, 无咎.

九五. 无妄之疾, 勿藥有喜.

上九. 无妄行, 有眚, 无攸利.

29.  習坎. 有孚, 維心, 亨. 行有尚.

初六. 習坎, 入于坎窞, 凶.

九二. 坎有險, 求小得.

六三. 來之坎, 坎險且枕. 入于坎窞, 勿用.

六四. 樽酒簋贰, 用缶. 納約自牖, 終无咎.

九五. 坎不盈, 祇既平, 无咎.

上六. 係用徽纆, 寘于叢棘, 三歲不得, 凶.

30.  離. 利貞. 亨. 畜牝牛吉.

初九. 履錯然, 敬之, 无咎.

六二. 黃離，元吉.
九三. 日昃之離，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凶.
九四. 突如其來如，焚如死如棄如.
六五. 出涕沱若，戚嗟若，吉.
上九. 王用出征，有嘉折首，獲匪其醜，无咎.

[다섯째 주]

下經

31. ☵ 咸. 亨. 利貞. 取女吉.
初六. 咸其拇.
六二. 咸其腓，凶. 居，吉.
九三. 咸其股，執其隨，往吝.
九四. 貞吉. 悔亡. 憧憧往來，朋從爾思.
九五. 咸其脢，无悔.
上六. 咸其輔頰舌.
33. ☶ 遯. 亨. 小利貞.
初六. 遯尾，厲. 勿用有攸往.
六二. 執之用黃牛之革，莫之能說.
九三. 係遯，有疾厲. 畜臣妾吉.

九四. 好遯，君子吉，小人否。

九五. 嘉遯，貞吉。

上九. 肥遯，无不利。

34.  大壯. 利貞.

初九. 壯于趾，征凶。有孚。

九二. 貞吉。

九三. 小人用壯，君子用罔，貞厲。

羝羊觸藩，羸其角。

九四. 貞吉，悔亡。藩決不羸，壯于大輿之輹。

六五. 喪羊于易，无悔。

上六. 羝羊觸藩，不能退，不能遂，无攸利。

艱則吉。

36.  明夷. 利艱貞.

初九. 明夷于飛，垂其(左)翼。君子于行，

三日不食。有攸往，主人有言。

六二. 明夷夷于左股，用拯馬壯，吉。

九三. 明夷(夷)于南狩，得其大首。不可疾貞。

六四. 入于左腹，獲明夷。之心于出門庭。

六五. 箕子之明夷，利貞。

上六. 不明，晦. 初登于天，後入于地.

38. ☱ 睽. 小事吉.

初九. 悔亡. 喪馬，勿逐，自復. 見惡人，无咎.

九二. 遇主于巷，无咎.

六三. 見輿曳，其牛掣，其人天且劓，
无初有終.

九四. 睽孤，遇元夫，交孚，厲，无咎.

六五. 悔亡. 厥宗噬膚，往，何咎.

上九. 睽孤，見豕負塗，載鬼一車，先張之弧，
後說之弧，匪寇婚媾. 往遇雨則吉.

44. ☱ 姤. 女壯，勿用取女.

初六. 繫于金柅，貞吉. 有攸往，見凶.
羸豕孚蹢躅.

九二. 包有魚，无咎，不利賓.

九三. 臀无膚，其行次且，厲，无大咎.

九四. 包无魚，起凶.

九五. 以杞包瓜，含章，有隕白天.

上九. 姤其角，吝. 无咎.

[여섯째 주]

48.  井. 改邑不改井，无喪无得。往來井，
井汔至，亦未繙井，羸其瓶，凶。

初六. 井泥不食，舊井无禽。

九二. 井谷射鮒，甕敝漏。

九三. 井渫不食，爲我心恻。可用汲，
王明並受其福。

六四. 井甃，无咎。

九五. 井冽寒泉食。

上六. 井收勿幕，有孚，元吉。

50.  鼎. 元吉. 亨。

初六. 鼎顛趾，利出否。得妾以其子，无咎。

九二. 鼎有實，我仇有疾，不我能卽，吉。

九三. 鼎耳革，其行塞，稚膏不食，
方雨虧悔，終吉。

九四. 鼎折足，覆公餗，其形渥，凶。

六五. 鼎黃耳金鉉，利貞。

上九. 鼎玉鉉，大吉，无不利。

53.  漸. 女歸吉. 利貞。

初六. 鴻漸于干。小子厲，有言，无咎。

六二．鴻漸于磐．飲食衎衎，吉．
九三．鴻漸于陸．夫征不復，婦孕不育，凶．
利禦寇．
六四．鴻漸于木．或得其桷，无咎．
九五．鴻漸于陵．婦三歲不孕，終莫之勝，吉．
上九．鴻漸于陸．其羽可用爲儀，吉．

56.  旅．小亨．旅貞吉．

初六．旅瑣瑣，斯其所，取災．
六二．旅即次，懷其資(斧)，得童僕，貞(吉)．
九三．旅焚其次，喪其童僕，貞厲．
九四．旅于處，得其資斧，我心不快．
六五．射雉，一矢亡，終以譽命．
上九．鳥焚其巢，旅人先笑後號咷，
喪牛于易，凶．

59.  渙．亨，王假有廟．利涉大川．利貞．

初六．用拯馬壯，吉．
九二．渙奔其机，悔亡．
六三．渙其躬，无悔．
六四．渙其羣，元吉．渙有丘，匪夷所思．

九五. 渙汗其大號, 渙王居, 无咎.

上九. 渙其血去逖出, 无咎.

61. ☵ 中孚豚魚, 吉. 利涉大川. 利貞.

初九. 虞吉, 有他不燕.

九二.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六三. 得敵, 或鼓或罷或泣或歌.

六四. 月幾望, 馬匹亡, 无咎.

九五. 有孚攣如, 无咎.

上九. 翰音登于天, 貞凶.

[일곱째 주]

주역점법

1. 괘를 얻는 법
2. 변효를 구하는 법
3. 괘효사를 보는 법
4. 점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1. 괘를 얻는 법

상牀 위에 50개의 산算가지가 들어있는 통을 놓아둔다. 산가지는 가느다란 대나무를 사용하며, 한 개의 길이는 대략 30cm이다. 통 속에 들어있는 50개의 산가지를 왼손으로 잡아내어, 오른손으로 그 하나를 뽑아 다시 통 속에 넣는다.

제일변 : 산가지 49개를 사용한다.

① 산가지를 두 손에 나누어 쥐다. 왼손의 산가지는 상 위쪽에 가로로 놓고 하늘(天)을, 오른손의 산가지는 상 아래쪽에 가로로 놓고 땅(地)을 상징한다.

② 왼손으로 위쪽에 놓아둔 산가지에서 하나를 뽑아, 위아래 산가지 사이에 세로로 놓고, 사람(人)을 상징한다.

③ 왼손으로 위쪽에 가로로 놓아둔 산가지를 쥐고, 오른손으로 네 개씩 한 조로 떨어낸다. 떨어진 산가지는 위쪽 그 자리에 놓아둔다.

④ 왼손에 남은 산가지가 네 개 이하가 되면, 이것을 사람을 상징하는 한 개의 산가지 왼쪽에 세로로 놓아둔다.

⑤ 오른손으로 아래쪽에 가로로 놓아둔 산가지를 쥐고, 왼손으로 네 개씩 한 조로 떨어낸다. 떨어진 산가지는 아래쪽 그 자리에 놓아둔다.

⑥ 오른손에 남은 산가지가 네 개 이하가 되면, 이것을 사람을 상징하는 한 개의 산가지 오른쪽에 세로로 놓아둔다.

⑦ 세로로 놓아둔 한 개의 산가지(人)와 그 양쪽에 놓아둔 산가지를 합하여, 원편 한 곳에 세로로 놓아둔다.

이것으로 제이변은 끝난다. 일변하여 얻은 산가지 수는 5개 아니면 9개가 된다. 이것을 제외하면, 상 위에 남아있는 산가지는 혹은 44개 혹은 40개가 된다.

제이변 : 남은 산가지 44개 혹은 40개를 사용한다.

⑧ ①과 같이 한다.

⑨ ②와 같이 한다.

⑩ ③과 같이 한다.

⑪ ④와 같이 한다.

⑫ ⑤와 같이 한다.

⑬ ⑥과 같이 한다.

⑭ ⑦과 같이 한다.

이것으로 제이변이 끝난다. 이변하여 얻은 산가지 수는 4개 아니면 8개가 된다. 이것을 제외하면, 상 위에 남아있는 산가지는 혹은 40개 혹은 36개 혹은 32개가 된다.

제삼변 : 남은 산가지 40개 혹은 36개 혹은 32개를 사용한다.

⑮ ①과 같이 한다.

⑯ ②와 같이 한다.

⑰ ③과 같이 한다.

⑱ ④와 같이 한다.

⑲ ⑤와 같이 한다.

⑳ ⑥과 같이 한다.

㉑ ⑦과 같이 한다.

이것으로 제삼변이 끝난다. 삼변하여 얻은 산가지 수는 4개 아니면 8개가 된다. 이것을 제외하면, 상 위에 남아있는 산가지는 혹은 36개 혹은 32개 혹은 28개 혹은 24개가 된다. 이것을 4개씩 덜어낸다.

- ㉠ 36개는 4개씩 9번 덜어낸 수이다. 9이고, 노양이며, 변할 수 있는 양효(可變之陽爻)이다.
- ㉡ 32개는 4개씩 8번 덜어낸 수이다. 8이고, 소음이며, 변하지 않는 음효(不變之陰爻)이다.
- ㉢ 28개는 4개씩 7번 덜어낸 수이다. 7이고, 소양이며, 변하지 않는 양효(不變之陽爻)이다.
- ㉣ 24개는 4개씩 6번 덜어낸 수이다. 6이고, 노음이며, 변할 수 있는 음효(可變之陰爻)이다.

이렇게 삼변하여 9, 8, 7, 6 가운데 한 개의 수를 얻게 된다. 이 수를 영수營數라고 한다. 9와 7은 홀수이고 양효이다. 8과 6은 짝수이고 음효이다.

- ㉠ 노양 9를 얻었다면 양효 ‘—’를 그리고, 그 옆에 9자를 기록한다.
- ㉡ 소양 7을 얻었다면 양효 ‘—’를 그리고, 그 옆에 7자를 기록한다.
- ㉢ 소음 8을 얻었다면, 음효 ‘--’를 그리고, 그 옆에 8자를 기록한다.
- ㉣ 노음 6을 얻었다면, 음효 ‘--’를 그리고, 그 옆에 6자를 기록한다.

이렇게 하여 한 괘의 첫 효를 얻는다. 나머지 다섯 효도 첫 효를 얻는 방법과 똑같이 셈하여 얻는다. 여섯 효를 모두 얻으면 한 괘가 성립된다. 여섯 효는 각각 하나의 영수를 가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 9
 -- 6
 — 7
 -- 8
 — 9
 기제既濟

한 괘는 여섯 효이고, 한 효는 삼변하여 얻으므로 $6 \times 3 = 18$ 번하여 한 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십팔변법十八變法’이라고 한다.

2. 변효를 구하는 법

괘를 얻었다면 그다음은 변효를 구해야 한다. 변효를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시초를 셈하여 얻은 괘를 ‘본괘本卦’라 하고, 변한 괘를 ‘지괘之卦’라고 한다.)

- ① 여섯 효의 영수를 합하여 괘의 영수를 얻는다.
- ② 천지의 수 55에서 괘의 영수를 빼어 나머지 수를 얻는다.
- ③ 나머지 수를 가지고 처음 효부터 꼭대기 효로 올라가며 셈을 한다.

- ④ 꼭대기 효에 이르면 다시 꼭대기 효에서 처음 효로 내려오며 셈을 한다.
- ⑤ 나머지 수가 다하는 효가 바로 변효이다.
- ⑥ 변효의 영수가 9이면 음효로 변화시켜 지괘를 얻는다.
- ⑦ 변효의 영수가 6이면 양효로 변화시켜 지괘를 얻는다.
- ⑧ 변효의 영수가 7 혹은 8이면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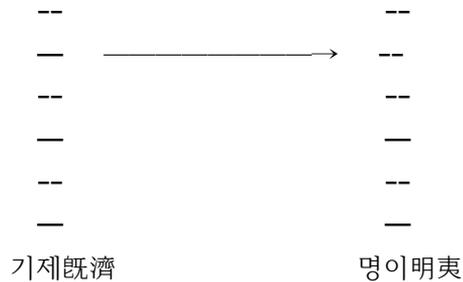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괘의 영수는 47이다.
- ② $55-47=8$ 이다.
- ③ 8을 가지고 처음 효부터 꼭대기 효로 올라가며 셈을 한다.
- ④ 꼭대기 효에 이르면 다시 꼭대기 효에서 처음 효로 내려오며 셈을 한다.



- ⑤ 나머지 수 8이 다하는 다섯째 양효가 변효이다.
- ⑥ 다섯째 양효의 영수가 9이므로 음효로 변화시켜 지괘를 얻는다.



기제괘가 명이괘로 변하는 것을 얻었다. 즉 기제괘 다섯째 양효를 변효로 얻었다는 말이다.

본과는 기제과, 지과는 명이과이다. 이렇게 하여 변효를 구한다.

3. 과효사를 보는 법

변효를 얻었다면 그다음은 과효사를 보는 법을 알아야 한다. 과효사를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섯 효가 모두 7 혹은 8일 경우

'변할 수 있는 효(9, 6)'가 없으니 변하지 않는 과이다. 변효를 구할 필요가 없이 본과의 과사로 점을 판단한다.

② 한 효가 9 혹은 6일 경우

㉠ 이 효가 변효이면 본과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 이 효가 변효가 아니면 본과의 과사로 점을 판단한다.

③ 두 효가 9 혹은 6일 경우

㉠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 본과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 두 효 모두 변효가 아니면 본과의 과사로 점을 판단한다. 변할 수 있는 효(9, 6)가 변하지 않는 효(7, 8)보다 적기 때문이다.

④ 세 효가 9 혹은 6일 경우

㉠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 본과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 세 효 모두 변효가 아니면 세 효의 양효 9는 음효로, 음효 6은 양효로 변화시켜 지과를 얻어, 본과와 지과의 과사를 합하여 점을 판단한다. 변할 수 있는 효(9, 6)와 변하지 않는 효(7, 8)가 같기 때문이다.

⑤ 네 효가 9 혹은 6일 경우

㉠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 본과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 네 효 모두 변효가 아니면 네 효의 양효 9는 음효로, 음효 6은 양효로 변화시켜 지과를 얻어, 지과의 과사로 점을 판단한다. 변할 수 있는 효(9, 6)가 변하지 않는 효(7, 8)보다 많기 때문이다.

⑥ 다섯 효가 9 혹은 6일 경우

㉠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 본과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㉔ 다섯 효 모두 변효가 아니면 다섯 효의 양효 9는 음효로, 음효 6은 양효로 변화시켜 지괘를 얻어, 지괘의 괘사로 점을 판단한다. 변할 수 있는 효(9, 6)가 변하지 않는 효(7, 8)보다 많기 때문이다.

㉕ 여섯 효 모두 9 혹은 6일 경우

이것은 여섯 효 모두 변하는 괘이다. 변효를 구할 필요 없이, 여섯 효의 양효 9는 음효로, 음효 6은 양효로 변화시켜 지괘를 얻는다.

㉖ 건괘가 곤괘로 변하는 것을 얻으면 건괘 용구用九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㉗ 곤괘가 건괘로 변하는 것을 얻으면 곤괘 용육用六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㉘ 여섯 효 모두 9와 6이 섞여있는 괘를 얻으면 지괘의 괘사로 점을 판단한다. 여섯 효 모두 변하는 괘이기 때문이다.

이상, 괘효사를 보는 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변하지 않는 괘는 본괘의 괘사로 점을 판단한다.

② 여섯 효 모두 변하는 괘는 건괘는 용구, 곤괘는 용육, 그 외에는 지괘의 괘사로 점을 판단한다.

③ 변할 수 있는 효 9 혹은 6이 변효와 마주친다면 본괘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④ 변할 수 있는 효 9 혹은 6이 변효와 마주치지 않을 때

㉙ 변할 수 있는 효(9, 6)가 변하지 않는 효(7, 8)보다 적다면 본괘의 괘사로 점을 판단한다.

㉚ 같다면 본괘와 지괘의 괘사를 합하여 점을 판단한다.

㉛ 많다면 지괘의 괘사로 점을 판단한다.

4. 점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1) 괘효사를 보고 점을 판단한다.

① 점을 쳐 얻은 괘사 혹은 효사 전체를 보고 점을 판단함.

② 한 부분만 가지고 점을 판단함.

③ 한 글자만 가지고 점을 판단함.

④ 괘효사의 해석은 정해진 격식이 없음.

⑤ 점치고자 하는 일의 상황과 흐름에 맞게 해석함.

⑥ 점을 쳐 얻은 괘효사가 점친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점을 판단하지 않음.

2) 괘상을 가지고 점을 판단한다.

① 본괘의 괘상을 가지고 점을 판단함.

② 지괘의 괘상을 가지고 점을 판단함.

③ 본괘와 지괘의 괘상을 가지고 점을 판단함.

3) 괘명을 가지고 점을 판단한다.

① 본괘의 괘명을 가지고 점을 판단함.

② 지괘의 괘명을 가지고 점을 판단함.

③ 본괘와 지괘의 괘명을 가지고 점을 판단함.

[여덟째 주]

繫辭 上傳

제1장

天尊地卑，乾坤定矣。卑高以陳，貴賤位矣。動靜有常，剛柔斷矣。方以類聚，物以羣分，吉凶生矣。在天成象，在地成形，變化見矣。

제4장

易與天地準，故能彌綸天地之道。仰以觀於天文，俯以察於地理，是故知幽明之故。原始反終，故知死生之說。精氣爲物，遊魂爲變，是故知鬼神之情狀。與天地相似，故不違。知周乎萬物，而道濟天下，故不過。旁行而不流，樂天知命，故不憂。安土敦乎仁，故能愛。範圍天地之化而不過，曲成萬物而不遺，通乎晝夜之道而知。故神无方而易无體。

제5장

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也，成之者性也。仁

者見之謂之仁，知者見之謂之知。百姓日用而不知，故君子之道鮮矣。顯諸仁，藏諸用，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盛德大業至矣哉！富有之謂大業，日新之謂盛德。生生之謂易，成象之謂乾，效法之謂坤，極數知來之謂占，通變之謂事，陰陽不測之謂神。

제9장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天數五，地數五，五位相得而各有合，天數二十有五，地數三十，凡天地之數五十有五，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大衍之數五十，其用四十有九。分而爲二以象兩，掛一以象三，揲之以四以象四時，歸奇於扚以象閏，五歲再閏，故再扚而後掛。乾之策二百一十有六，坤之策百四十有四，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也。是故四營而成易，十有八變而成卦。八卦而小成，引而伸之，觸類而長之，天下之能事畢矣。顯道神德行，是故可與酬酢，可與祐神矣。子曰 知變化之道者，其知神之所爲乎！

易有聖人之道四焉，以言者尚其辭，以動者尚其變，以制器者尚其象，以卜筮者尚其占。是以君子將有爲也，將有行也，問焉而以言。其受命也如響，无有遠近幽深，遂知來物。非天下之至精，其孰能與於此！參伍以變，錯綜其數。通其變，遂成天下之文。極其數，遂定天下之象。非天下之至變，其孰能與於此！易无思也，无爲也，寂然不動，感而遂通天下之故。非天下之至神，其孰能與於此！

제11장

是故闔戶謂之坤，闢戶謂之乾，一闔一闢謂之變，往來不窮謂之通。見乃謂之象，形乃謂之器，制而用之謂之法。利用出入，民咸用之謂之神。是故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吉凶生大業。是故天生神物，聖人則之。天地變化，聖人效之。天垂象，見吉凶，聖人象之。河出圖，洛出書，聖人則之。易有四象，所以示也。繫辭焉，所以告也。定之以吉

凶，所以斷也。

제12장

子曰 “聖人立象以盡意，設卦以盡情偽，繫辭焉以盡其言，變而通之以盡利，鼓之舞之以盡神。”
乾坤，其易之緼邪。乾坤成列，而易立乎其中矣。乾坤毀，則无以見易。易不可見，則乾坤或幾乎息矣。是故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化而裁之謂之變，推而行之謂之通，舉而錯之天下之民謂之事業。

[열째 주]

繫辭 下傳

제1장

八卦成列，象在其中矣。因而重之，爻在其中矣。剛柔相推，變在其中矣。繫辭焉而命之，動在其中矣。吉凶悔吝者，生乎動者也。剛柔者，立本者也。變通者，趣時者也。吉凶者，貞勝者也。天地之道，貞觀者也。日月之道，貞明者也。天下之動，貞夫一者也。夫乾，確然示人易矣。夫坤，隤然示人簡矣。爻也者，效此者也。象也者，像此者也。爻象動乎內，吉凶見乎外，功業見乎變，

聖人之情見乎辭。天地之大德曰生，聖人之大寶曰位。何以守位曰仁，何以聚人曰財。理財正辭，禁民爲非曰義。

제2장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以類萬物之情。作結繩而爲網罟，以佃以漁，蓋取諸離。包犧氏沒，神農氏作，斲木爲耜，揉木爲耒，耒耨之利，以教天下，蓋取諸益。日中爲市，致天下之民，聚天下之貨，交易而退，各得其所(欲)，蓋取諸噬嗑。神農氏沒，黃帝，堯，舜氏作，通其變，使民不倦，神而化之，使民宜之。易，窮則變，變則通，通則久。是以‘自天祐之，吉无不利。’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蓋取諸乾坤。剡木爲舟，剡木爲楫，舟楫之利，以濟不通，致遠以利天下，蓋取諸渙。服牛乘馬，引重致遠，以利天下，蓋取諸隨。重門擊柝，以待暴客，蓋取諸豫。斷木爲杵，掘地爲臼，臼杵之利，萬民以濟，蓋取諸小過。弦木爲弧，剡木爲矢，弧矢之

利，以威天下，蓋取諸睽。上古穴居而野處，後世聖人易之以宮室，上棟下宇，以待風雨，蓋取諸大壯。古之葬者，厚衣之以薪，葬之中野，不封不樹，喪期無數。後世聖人易之以棺槨，蓋取諸大過。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蓋取諸夬。

[열한째 주]

제5장

1. 咸卦 九四

易曰“憧憧往來，朋從爾思。”子曰“天下何思何慮？天下同歸而殊塗，一致而百慮，天下何思何慮？日往則月來，月往則日來，日月相推而明生焉。寒往則暑來，暑往則寒來，寒暑相推而歲成焉。往者屈也，來者信也，屈信相感而利生焉。尺蠖之屈，以求信也。龍蛇之蟄，以存身也。精義入神，以致用也。利用安身，以崇德也。過此以往，未之或知也。窮神知化，德之盛也。”

2. 困卦 六三

易曰“困于石，據于蒺藜，入于其宮，不見其妻，凶。”子曰“非所困而困焉，名必辱。非所據而據焉，身必危。既辱且危，死期將至，妻其可得見

耶?”

3. 解卦 上六

易曰“公用射隼于高墉之上，獲之，无不利。”子曰“隼者，禽也。弓矢者，器也。射之者，人也。君子藏器於身，待時而動，何不利之有。動而不括，是以出而有獲，語成器而動者也。”

4. 噬嗑卦 初九

子曰“小人不恥不仁，不畏不義，不見利不勸，不威不懲。小懲而大誡，此小人之福也。易曰‘履校滅趾，无咎。’此之謂也。”

5. 噬嗑卦 上九

“善不積，不足以成名。惡不積，不足以滅身。小人以小善爲无益而弗爲也，以小惡爲无傷而弗去也，故惡積而不可揜，罪大而不可解。易曰‘何校滅耳，凶。’”

6. 比卦否卦 九五

子曰“危者，安其位者也。亡者，保其存者也。亂者，有其治者也。是故君子安而不忘危，存而不忘亡，治而不忘亂，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易曰‘其亡!其亡!繫于苞桑。’”

7. 鼎卦 九四

子曰 “德薄而位尊， 知小而謀大， 力小而任重， 鮮不及矣。 易曰 ‘鼎折足， 覆公餗， 其形渥， 凶。’ 言不勝其任也。”

8. 豫卦 六二

子曰 “知幾其神乎！ 君子上交不諂， 下交不瀆， 其知幾乎！ 幾者， 動之微， 吉(凶)之先見者也。 君子見幾而作， 不俟終日。 易曰 ‘介于石， 不終日， 貞吉。’ 介如石焉， 寧用終日， 斷可識矣。 君子知微知彰， 知柔知剛， 萬夫之望。”

9. 復卦 初九

子曰 “顏氏之子， 其殆庶幾乎！ 有不善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也。 易曰 ‘不遠復， 无祇悔， 元吉。’”

10. 損卦 六三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易曰 ‘三人行， 則損一人。 一人行， 則得其友。’ 言致一也。”

11. 益卦 上九

子曰 “君子安其身而後動， 易其心而後語， 定其交而後求。 君子脩此三者， 故全也。 危以動， 則

民不與也。懼以語，則民不應也。无交而求，則民不與也。莫之與，則傷之者至矣。易曰‘莫益之，或擊之，立心勿恒，凶。’”

제9장

易之爲書也，原始要終，以爲質也。六爻相雜，唯其時物也。其初難知，其上易知，本末也。初辭擬之，卒成之終。若夫雜物撰德，辨是與非，則非其中爻不備。噫亦要存亡吉凶，則居可知矣。知者觀其彖辭，則思過半矣。二與四，同功而異位，其善不同，二多譽，四多懼，近也。柔之爲道，不利遠者，其要无咎，其用柔中也。三與五，同功而異位，(其遇不同)，三多凶，五多功，貴賤之等也。其柔危，其剛勝邪。

제12장

夫乾，天下之至健也，德行恒易，以知險。夫坤，天下之至順也，德行恒簡，以知阻。能說諸心，能研諸侯之慮，定天下之吉凶，成天下之亹亹者。是故變化云爲，吉事有祥，象事知器，占事知來。天地設位，聖人成能。人謀鬼謀，百姓與能。凡

易之情，近而不相得則凶，或害之，悔且吝。將叛者，其辭慙。中心疑者，其辭枝。吉人之辭寡。躁人之辭多。誣善之人，其辭游。失其守者，其辭屈。

[열두째 주]

說卦傳

제3장

天地定位，山澤通氣，雷風相薄，水火不相射。八卦相錯。數往者順，知來者逆，是故易逆數也。

제5장

萬物出乎震，震，東方也。齊乎巽，巽，東南也。齊也者，言萬物之潔齊也。離也者，明也，萬物皆相見，南方之卦也。聖人南面而聽天下，嚮明而治，蓋取諸此也。坤也者，地也，萬物皆致養焉，故曰致役乎坤。兌，正秋也，萬物之所說也，故曰說言乎兌。戰乎乾，乾，西北之卦也，言陰陽相薄也。坎者，水也，正北方之卦也，勞卦也，萬物之所歸也，故曰勞乎坎。艮，東北之卦也，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故曰成言乎艮。

제10장

乾，天也，故稱乎父。坤，地也，故稱乎母。震一索而得男，故謂之長男。巽一索而得女，故謂之長女。坎再索而得男，故謂之中男。離再索而得女，故謂之中女。艮三索而得男，故謂之少男。兌三索而得女，故謂之少女。